

# “고소득사업자 소득탈루율 47.65%”

### 808명 탈루소득 1조1172억원... 실제 소득 절반가량 신고 안해 세무조사 대상은 감소... 민주 김수홍 의원, “세금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국회청문회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료실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

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수홍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 등 전북도당 당직자들이 도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 민주 전북도당 추석 맞아 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추석을 맞아 28일 사회복지시설 3곳(성예실버홈, 우리노인복지센터, 즐거운집노인복지센터)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회 간담회와 활성화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날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명연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원과 전북도당 당직자들이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명절 활동 지침’에 따라 방역과 국민 생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다.

전북도당은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지역 상권 침체 현황을 파악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원내대표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임됐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의 부대표 임명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사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24일 대표단은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부대표에 임명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임은 지방의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이 의원이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치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했다는 계당 인력의 설명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 공공기관 K-뉴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민주 도당 당-정-관 협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위원장)은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북지역 당, 정, 관 협업을 위해 ‘전북 공공기관 K-뉴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K-뉴딜의 기회와 입안은 중앙에서 진행했지만 실제 집행하는 현장은 지역이며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뉴딜 산업을 조성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면서 “전북 맞춤형 K-뉴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전북지역 공공기관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협업체를 전북의 자원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전북도당 K-뉴딜 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맡았으며 기조발제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K-뉴딜 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전북형 디지털 뉴딜(데이터센터유치, 디지털트윈) 그린뉴딜(새만금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조발제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선도를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산업육성 등의 ‘디지털뉴딜’, 신재생에너지 투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강력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며 “이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선, 지역확산을 통해 종합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택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 이영미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순으로 각 공공기관별 K-뉴딜 준비 및 대응 그리고 지역내 협업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뉴딜 준비와 대응에 대해 발표한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디지털혁신과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자체, 공공기관 협업과 원-원 전략에 대한 종합적 마무리 토론회에서 임성진 K-뉴딜 공동위원장도 최낙관 사회적뉴딜분과위원장,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것에 적극 공감하고 무엇보다 전북형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해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 공공기관이 협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전북형 K-뉴딜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다”며 “앞으로 전북도당이 그 중심 역할에 서서 성공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대도시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 지방 의사보다 2배 가량 높아

### 이용호 의원, “농어촌지역 의사 부족 현상 나타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의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고 대도시 공공의료원 의사의 연봉이 지역 공공의료원 의사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또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의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으로 고액 연봉을 줘야지만 가가스로 의사를 구하고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하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최근 3년간 명절 기간 119구급차 15만여명 이상

### 민주 한병도 의원 “하루 평균 5035명”

최근 3년간 설날,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119구급차가 하루 평균 5,035명을 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설날 연휴까지의 명절기간 119구급차가 출동해 이송한 인원은 모두 15만6,071명으로 일 평균 5,035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만5,312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 서울 2만6,719명, 부산 9,994명, 경북 8,968명, 인천 8,576명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올해 설날의 경우에는 총 1만9,851명으로 2019년 설날의 1만8,387명 대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 없이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대비해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이명연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스테이스트롱’ 캠페인 동참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른 종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스테이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축! 전주매일 창간

# 대한민국, 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동안 우리, 잘 견뎌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